



김대중 대통령과 악수하는 꿈, 1억원 당첨

평상시에도 김대중대통령을 존경했다는 이모씨(32). 악수하면 해보고 싶지만 현실에서 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원을 풀었으니. 그리고 복권 억원에 당첨됐으니 일석이조

현재 중장비 운전일을 하고 있는 부산의 이모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결심하면서 중장비 운전을 배워야겠다고 생각.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처음에는 건축현장에서 덩어리가 큰 중장비를 운전한다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능수능란하다.

“항상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하면 힘이 많이 드는 대신에 일당이 많아 이제는 다른 일로 전업할 생각이 없어요.”

중장비 일을 하면서 집도 한 채 마련했다. 물론 일부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대로만 일이 진행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씨가 처음 중장비 일을 시작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어렸을 때부터 철학관을 자주 가게됐다는 이씨.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씨는 역술인의 도움을 받았다.

“저는 쇠를 다루는 직업을 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장비 운전. 큰 쇠덩어리를 운전하는 것이 바로 그 일. 그 래선지 꾸준히 일거리가 찾아와 주었다. 당연히 돈이 붙어났고 이씨는 꼬박꼬박 적금을 들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술인이 “30대에 돈이 많이 붙는다”라는 말도 이씨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었다. 큰 돈이 언제 붙을지는 몰라도 조그만 돈이라도 본인이 안쓰면 붙은 것이 아닌가.

그 큰 돈이 이번에 붙었다. 물론 일해서 번 돈은 아니지만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그것도 1억원에.

“점이 통계 아닙니까? 신봉해서는 안되지만 살아가는데 좋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하면 피해서 해를 안입을 수도 있고.”

역술인의 말이 자신의 삶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을거라며 복권 이외에 다른 일에서도 열심히 해 돈이 붙도록 노력할 것이라고.